

# 선택이 중요한 임플란트, 언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

기사입력 2012-06-14 10:19 최종수정 2012-09-18 09:33



[이송이 기자] 자연치아에 버금가는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개당 2백만 원 내외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가격이 개당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격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도 가격이 더 조정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으로도 임플란트는 손상된 치아를 치료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술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는 저작능력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치아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2의 자연치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 예전에는 나이드신 분이 하는 시술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에서도 애용하기 시작했다.

치과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이지만 치아가 썩기 시작하면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멈출 수가 없다. 치아의 손상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주변의 치아들이 상실된 치아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실된 치아를 되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치아교정까지 해야 되므로 치료비용 훨씬 많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이다. 상실된 치아의 치료는 하루라도 늦출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기존의 브리지 방식으로 상실된 치아를 복원하면 된다.

다만 최근에 임플란트 시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상실된 치아에 인공치아를 만들어 뼈에 나사못처럼 심는 임플란트가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자연치아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 임플란트의 이 같은 장점이 예전에 사용되던 치료법인 틀이나 브리지, 레진을 제치고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인공대치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면 브리거나 레진을 사용하여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작기능과 형태의 심미성, 시술 후 치아 건강 등에서 임플란트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선호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치악골에 단단한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탄탄하게 치아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기이다. 임플란트이건 브리지이건 레진이건 간에 제때에 제대로 시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치아가 하나라도 상실되면 빈자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좌우의 치아가 양쪽으로 벌어지게됩니다. 몇 달 후에 치아를 살펴보면 공간이 많이 생겨서 놀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치료는 물론 임플란트 치료는 가능한 빨리 치료해야 부작용이 적고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 **갤럭시S3 예약 판매 오늘부터 실시... '아이폰5는 언제?'**
-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 **의사협회 맹장 수술 거부 “포괄수가제, 대체 뭐 길래?”**
-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